

# 원로과학기술자가 걸어온 한평생

## 石泉 金 東 一 박사



### 國大案 소용돌이속 工大질서 확립

나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서울에서 맞았다. 광복은 우리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감격과 기쁨이었다. 지식인들은 내땅 내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몸부림쳐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나는 그해 9월 경성방직회사 영등포 공장 공장장을 시작했다. 군정청 문교부장 유억겸(兪億兼)씨로부터 국립 서

울대 공대학장을 맡아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를 길러달라는 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억겸씨는 동경제대 법대 출신의 선배로, 전부터 안면이 있었다. 당시 문교부 차장(차관)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오천석(吳天錫)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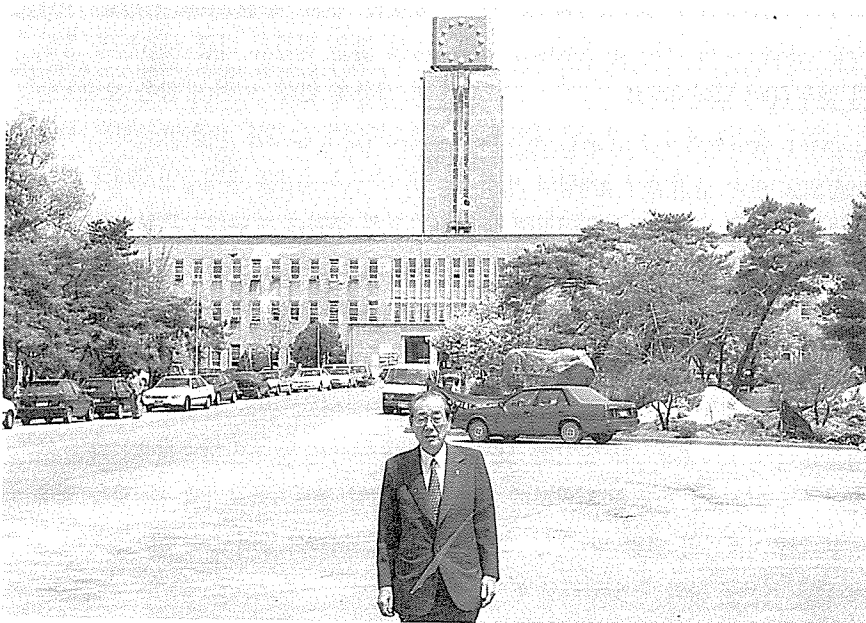
내가 서울대 공대 초대학장에 취임했

을 때는 국대안(國大案) 반대로 대학이 무척 소란한 시절이었다. 광복후 남한은 정치적인 혼란이 휘몰아쳤다. 뚜렷한 정치세력이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좌우익(左右翼)이 갈려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 京紡사직후 공대 확장취임

국대안의 경위는 대략 이러했다. 미 군정청 러치장관은 이런 가운데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102호(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를 공포했다. 이는 미 군정에서 교육부문을 맡고 있던 라카드대위와 오천석 문교부 차장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경성대학교 9개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였다.

통합되는 학교는 경성대(京城大)에 경성경전(京城經專)·경성치전(京城齒專)·경성법전(京城法專)·경성의전(京城醫專)·경성광전(京城鑛專)·경성사범(京城師範)·경성공전(京城工專)·경성여사(京城女師)·수원농전(水原農專)



▲ 서울공대 초대학장이었던 김동일박사가 서울산업대(구 국립서울대학교 공과대학본관)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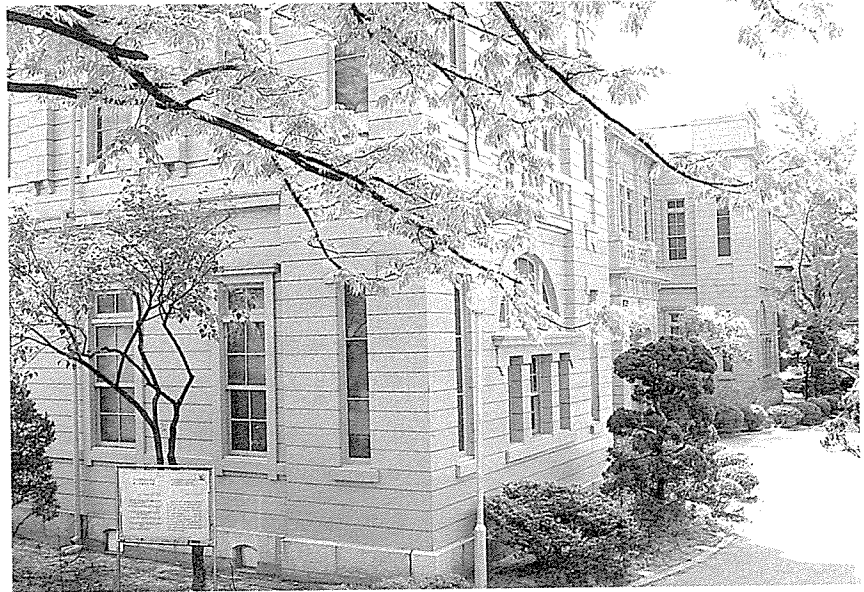
등 9개 전문학교였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이들 대학을 통합해 상대(商大)·치대(齒大)·법대(法大)·의대(醫大)·공대(工大)·사대(師大)·문리대(文理大)·예술대(藝術大)·농림대(農林大)와 대학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국대안은 같은 종류의 교육을 정부재정으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공과계통 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에는 경성대 이공학부와 경성고공·경성광전 등 3개교가 있었다. 경성고공은 1916년 중견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경성대 이공학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고등기술자를 길러내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경성광전은 한국에서 광업으로 돈을 많이 번 일본인의 기부금으로 1939년에 문을 연 학교였다.

그러나 이같은 국대안에 대해 경성대는 전문학교와 합친다는 것이 대학을 격하시킨다고 생각했고 전문대는 전문대대로 역사와 전통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경성의전이 특히 크게 반대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를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미 군정은 이런 가운데 국립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에 경성대 총장이었던 안스테드를 임명했다. 이어 초대 교무처장에 언더우드, 초대 학생처장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김성덕(金聖德)씨가 발탁됐다. 이에 대해 “미 식민지 교육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따라서 초기 제도와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조선공산당 박헌영(朴憲永)의 지령을 받은 좌익이 가담해서 파괴적인 극렬한 국대안 반대투쟁을 벌



▲ 동송동에 위치한 구 한국중앙공업연구소 겸 경성공전본부건물

이게 되었다. 국대안 반대투쟁의 모든 작전은 조선공산당 산하조직인 공청상임위원회의 강문석(姜文錫)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별 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벌였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이런 와중에서 1946년 9월 2일 정식 문을 열었다. 대학원장에 윤일선(尹日善), 문리대학장에 이태규(李泰圭), 법대학장에 고병국(高秉國), 의대학장에 심호섭(沈浩燮), 농대학장에 조백현(趙伯顯), 상대학장에 이인기(李寅基), 치대학장에 박명진(朴明鎭), 사대학장에 장리욱(張利郁) 그리고 내가 공대학장에 임명됐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정식 학생등록을 공고했다. 그러나 등록마감일이 되었는데도 등록창구는 한산하기만 했다. 등록을 해야 할 학생은 재학생 4천3백57명에 신입생 3천8백60명을 합해 8천2백17명에 달했다. 당시 경성대와 각 전문학교별 재학생 수는 다음과 같았다. \*경성대 법문학부 8백38명, 이공학부 4백8명, 의학부 1백90명, 예과 1천2백24명, \*사범학교 1천4백10명, \*여자사

범 3백31명, \*경성법전 4백86명, \*경성경전 8백60명, \*경성공전 7백84명, \*경성의전 3백37명, \*음악학교 2백73명, \*경성치전 2백45명, \*수원농전 4백77명, 경성광전 3백64명이었다.

좌익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등록을 방해한 것이었다. 좌익학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 하숙방까지 찾아 다니며 학생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공대도 마찬가지였다. 좌익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등록과 등교 거부하는 물론 수강을 못하도록 위협하는가 하면 동맹휴학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업을 방해했다. 또한 경성광전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는가 하면 학생들도 이에 가세해서 국대안 반대성명을 냈다. 경성대 이공학부도 교직원 38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학생들은 국대안 반대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직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국대안 반대의 거친 물결은 다음해 3월 20일 입법의원 34차 본회의에서 국립 서울대 이사진을 한국인만으로 구성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점차 가라앉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대 총장에 이춘호(李春昊)씨가 임명됐다. 좌익학생들이 줄기차게 부르짖던 “조선인 이사를 임명하라” “미국인 총장 물러나라”는 구호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교수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대학이 혼란에 빠져 학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다.

그 후 이주하(李舟河), 홍남표(洪南杓), 김삼용(金三龍) 등 조선공산당 거물들이 체포되고 장택상(張澤相) 수도 경찰청장이 국대안 반대운동은 좌익에 의한 조직적인 학원파괴공작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자 대학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이춘호총장은 학업분위기 쇄신을 위

해 제적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그래서 \*문리대 3백39명, 예과 8백62명, \*상대 2백99명, \*사대 5백31명, \*공대 5백73명, \*법대 2백여명, \*농대 1백58명, \*예대 1백22명, \*의대 2백36명, 예과 7명, \*치대 4명이 복학하게 되었다. 당시 복학을 허락받지 못했거나 등록을 끝내 포기한 학생은 1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그 뒤 상당수가 남로당에 가입해서 대한민국 수립때까지 좌익운동을 하다가 월북했거나 남한에 남아 6.25직전까지 지하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가 정상을 되찾게 된 데는 단과대학별로 결성된 건설학생회 간부들의 활동도 큰 몫을 했다. 공대의 경우 차경모(車敬模)와 오재일(吳在鎰)군의 역할이 컸다. 특히 공대 건설학생회 감찰부장을 맡은 차경모군은 평남 강서군에서 태어나 나와 동향인데다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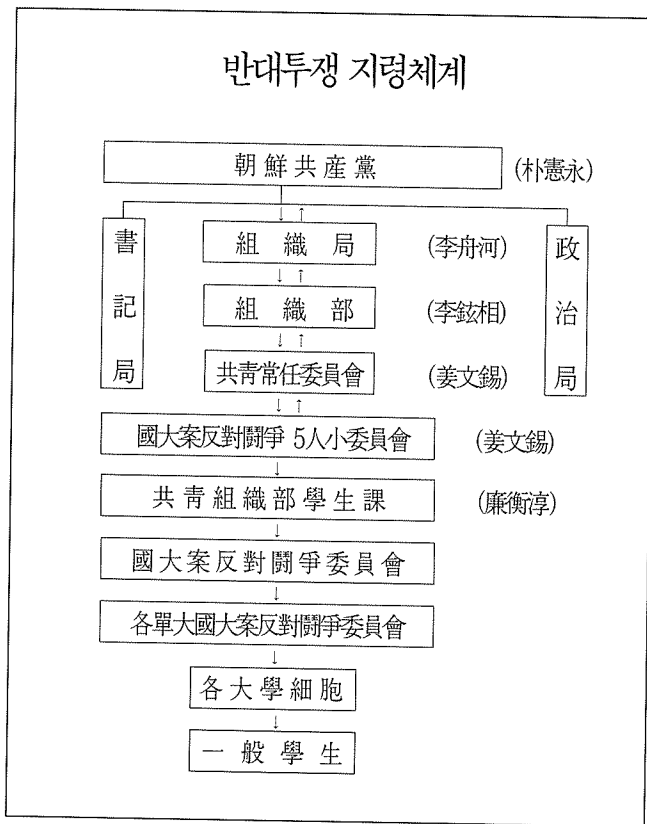
응하지 않은 학생은 곧바로 제적처분하고 보결생을 모집했다. 좌익학생들은 보결시험장을 습격하여 시험문제지를 찢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나는 이럴 때면 학교직원을 동원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칠판에 문제를 써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보결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복출신이 태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반공정신이 투철하여 건설학생회에 가입해서 좌익학생들과 싸우는데 앞장섰다.

### 등록거부학생 엄하게 다스려

사무직원 가운데도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면 책상과 의자를 내방으로 옮겨 강제 퇴직시켰다. 그래서 좌익학생들로부터 반동학장으로 낙인이 찍혀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한번은 “공대학장이 제도판(製圖版)을 팔아먹었다”는 터무니없는 구호를 외쳐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갔다. 안스테드총장은 나의 이같은 과단성에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당시 공대는 교수 39명, 부교수 8명, 조교수 23명, 전임강사 26명, 시간강사 44명 등 모두 1백40명이 있었다. 과별로 보면 화공 24명(교수 7, 부교수 1, 조교수 8, 시간강사 3), 건축 19명(교수 2, 부교수 1, 조교수 2, 전임강사 7, 시간강사 7), 금속 8명(교수 3, 조교수 2, 시간강사 3), 기계 15명(조교수 1, 전임강사 9, 시간강사 5), 섬유 19명(교수 4, 부교수 1, 조교수 4, 전임강사 2, 시간강사 8), 광산(자원) 12명(교수 2, 부교수 2, 조교수 1, 전임강사 1, 시간강사 6), 전기 10명(교수 7, 부교수 2, 조교수 1), 전자 2명(교수 1, 조교수 1), 조선 0명, 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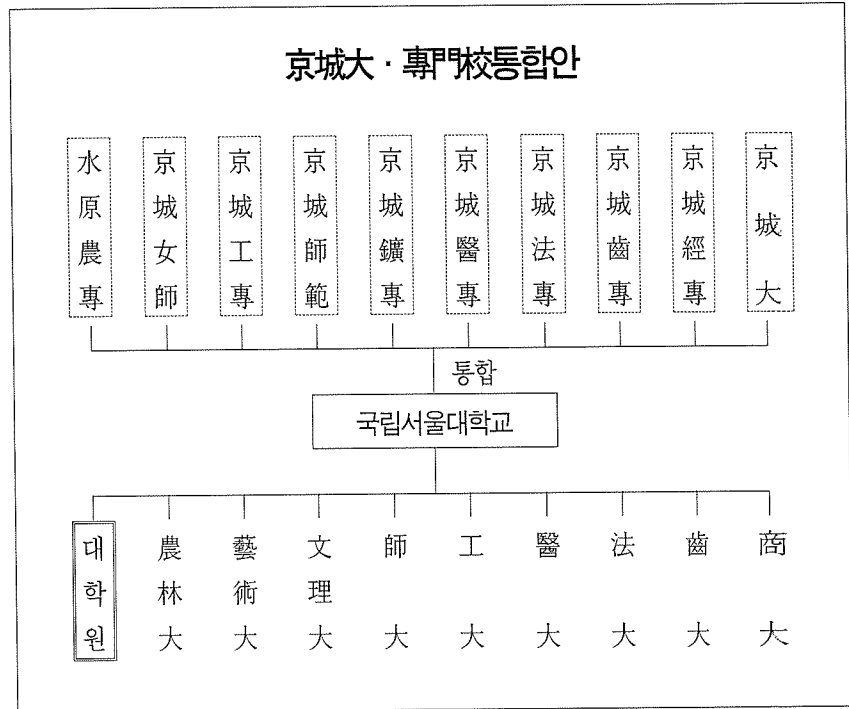
양고보 후배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공대학장 시절 학원을 정상화하는 일은 물론 여러모로 나를 도와 주었다. 나는 학원이 정치투쟁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학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은 가차없이 제적했다. 등록마감일을 두번까지 연기했는데도 이에



14명(교수 3, 부교수 1, 시간강사 9), 항공 4명(교수 1, 조교수 1, 전임강사 1, 시간강사 1), 공통과목 13명(교수 9, 조교수 1, 전임강사 1, 시간강사 2)이었다.

교수진이 모자라 개학 초기에는 전공 이외의 과목까지 강의를 해야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전 교수진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 를 기른다는 자부심으로 불평없이 열성을 다해 가르쳤다. 나도 학장일을 보며 전공이 화학섬유였지만 산·알카리, 인조비료, 화약, 화학공업개론, 유리공업 등을 전공교수가 확보될 때까지 가르쳤다.

39명 교수진의 출신과 전공은 다음과 같았다. \*동경제국대학=이종일(李宗日·전기) 김동일(金東一·응용화학) 이상현(李相賢·토목) \*경도제국대학=이승기(李升基·응용화학) 황영모(黃泳模·기계) 홍준기(洪準基·광산) \*구주제국대학=안동혁(安東赫·응용화학) 최호영(崔浩英·금속) 성찬용(成贊鏞·전기) \*동북제국대학=박동길(朴東吉·광물) 조광하(趙廣河·화학) 박희선(朴禧善·광산) 윤동석(尹東錫·금속) \*대판제국대학=전풍진(田豐鎭·응용화학) 정성계(丁性桂·전기) \*백림공과대학=신윤경(申允卿·화학) \*동경공업대학=이량(李樑·기계) 김형걸(金亨杰·건축) 성좌경(成佐慶·응용화학) \*조도전대학=이재곤(李載坤·전자) 오현위(吳鉉禧·전자) \*일본대학=조정만(趙正萬·전기) \*여순공과대학=유기연(劉基燕) \*경성고공(공전포합)=이균상(李均相·건축) 원태상(元泰相·토목) 나익영(羅益榮·응용화학) 김문상(金汶尙·섬유) \*남만공정=김재신(金在信·전기) \*동경고등사범=박경찬(朴敬贊·수학) \*동경고공=이정기(李廷紀·수학)



\*경도제대부속교원양성소=정봉협(鄭鳳浹·수학) \*출신학교 미상=신영목(申永默·수학) 방성희(方聖熙·물리) 박상현(朴相鉉·철학, 독일어) 김영근(金英根·영어) 손종진(孫宗珍·영어) 유진(柳津·영어) 김창제(金昶濟·국어) 정화영 등이었다.

단과대학 운영에 있어서 초기에는 교수회의의 권위가 상당히 인정되었다. 나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대학에는 없는 두가지 단안을 내렸다. 첫번째는 2년제 고등부를 신설한 것이고 두번째는 여학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남학생보다 좀 떨어져도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공과대학에 2년제 고등부를 신설한 것은 급격히 증대될 공업기술자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학생을 우대하는 것은 여성에게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나는 이 일로 해서

여자고등학교 교장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 집에까지 '물러나라' 협박장

당시 나는 중구 동자동에 마련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안마당에 협박장이 떨어져 있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학교의 내 사무실은 경성공전에 부속된 50평쯤 되는 단독건물이었는데 낮이면 좌익학생들이 몰려와 스크림을 짜고 "김동일학장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날이 잦았다. 나는 이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한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담배를 피워대며 분을 삭여야했다.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함께 좌익에 가담해서 "김동일학장 물러나라"고 외쳐댈 때 맘안이 교차됐다. 이때 배운 담배는 과충 명예회장인 민관식(閔寬植)씨의 권고에 따라 10여년 전 끊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㉟